



Music: 비익조

[강추] 감(柿) 이야기

콩 심은 데 콩 나는
천지의 이치를
감(柿) 만은
그렇지 않습니다.

감의 씨앗을 심으면
감나무가 나지 않고
대신 고욤나무가
나는 것입니다.

그래서 3~5 년쯤 지나
고욤나무가 자랐을 때
기존의 감나무를
잘라 이 고욤
(싼 떡잎 식물 감나무 묘목)
나무에 접을 붙여야
그다음 해부터 감이
열리게 됩니다.

그래서 감나무의
엄마나무라 합니다.



감나무가
상징하는 것은
사람으로 태어났다고
다 사람이 아니라

가르침을 받고
배워야 비로소
사람이 된다는
뜻을 담고 있습니다.

가르침을
받고 배우는 데에는
생가지를 칼로 찢어서
접붙일 때처럼
아픔이 따릅니다.

그 아픔을 겪으며
선인(善人)의
예지(叡智)를 받을 때
비로소 하나의
인격체가 될 수
있다는 것입니다.



감나무가
아무리 커도 열매가
한 번도 열리지 않은
나무를 꺾어보면

속에 검은 신이 없고
감이 열린 나무는 검은
신이 있습니다.

이것을 두고
부모가 자식을
낳고 키우는데
그만큼 마음고생이
많았다 하여
'부모를 생각하여
놓는다'라고 합니다.

감은 씨가
8 개여서 8 방백
(8 도 관찰사, 8 도 감사)를
뜻하며 후손에 8 도
관찰사가 나오라는
의미가 있습니다.

? 좋은 글 중에서 ?



우리 벗님들~!
健康조심하시고
親舊들 만나
茶 한잔 (소주 한잔) 나누시는
餘裕롭고 幸福한
나날 되세요~^

